

#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먼저 유학생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글로벌케어보험을 가입했다. 여러 보험을 찾아보았는데 대체로 보장범위가 비슷하다고 느껴 많이 들어본 곳으로 골랐다. 삼성화재는 월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어 딱 채운 5개월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영국으로 한학기만 가는 경우 무비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는 발급받지 않았다.

항공권은 출국 2달 전쯤 구매하였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인 버밍엄 공항까지는 직항이 없어 경유를 해야 했다. 나는 대한항공을 통해 예매하였고,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경유를 한 뒤에 KLM항공으로 버밍엄까지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였다. 종강 후 여행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편도로 구매하였다. 귀국 할 때에는 부다페스트에서 LOT항공을 이용하였다. 동유럽에서 귀국을 하는 것이 직항임에도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을 수 있었다.

### 나. 필요 물품(집 꾸리기)

영국은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방수가 되는 옷이 있으면 유용하다. 또한, 5월까지도 쌀쌀한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있으면 좋다. 라디에이터가 있지만 잘 시간에는 꺼져서 늦은 밤에는 전기장판을 틀지 않으면 추위가 느껴졌다. 옷은 겨울·봄옷 위주로 챙겼고, 여름옷은 현지에서 구매하였다.

영국은 콘센트 모양이 달라 멀티어댑터와 한국 콘센트용 멀티탭을 챙겨갔다. 수저와 타이레놀,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은 챙기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식의 경우 주변 마트나 버밍엄 한인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어를 사용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미리 회화 연습을 하고 온다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생활하는 데에 더 수월할 것이다. 울버햄튼대학교에는 영국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물가는 외식비나 교통비의 경우 꽤나 비싼 편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나 기본 생필품을 살 때에는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느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교환학생을 통해 영어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영어권 국가를 목표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영국식 영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국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한, 유럽에 위치하여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더욱 끌렸다. 지원 당시 영국은 울버햄튼대학교만 있었고, 토익만으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 나-2. 공항 - 학교

기숙사 입주가 시작되는 날에는 버밍엄 공항에서 학교까지 픽업을 해주었다. 시간대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었고,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렸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1차로 영국으로 출국 전 에이전시에서 보내준 모듈리스트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였다. 개강 후 2주 동안은 청강을 하고,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과목을 변경하려면 이 기간 MX빌딩을 방문해 대면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들었고,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외에는 교양수업은 따로 없었다. 전공수업은 workshop 형태였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기숙사는 1인 1실이고 5-6명의 인원이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였다. 한 플랫에 한국인이 많은 곳도 있었고, 몇 명 없는 곳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주는 분께서 오셔서 공용공간을 청소해주셨다.

### 나-5. 교내•외 활동

개강을 한 1월에는 학교 루나라운지에서 무비나잇, 퀴즈나잇, 빈티지마켓 등 여러 행사가 있었고, 이때 동아리 모집도 이루어졌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기숙사 바로 옆에 큰 마트가 3개 정도 있고, 웬만한 생필품은 다 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처 마트 중에서는 홈바겐이 제일 저렴한 편이었다.

시내와 역 모두 걸어서 30분 이내로 갈 수 있어 울버햄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었다.

영국 내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16-25세 레일카드를 구매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30파운드의 구매비용이 있지만 영국 내에서 여행을 다니며 더 큰 금액을 할인받았다.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국제학생증이 있다면 사이트를 통해 national express를 할인받을 수 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3월 마지막 주에 2주 정도 이스터 방학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에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콜마르·니스를 다녀왔다.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이스터 행사가 열려 밤에는 사람이 많고 혼잡했고, 마지막주 금요일이었던 3월 29일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 또한, 스페인과 니스는 여름 날씨를 기대했는데 봄 정도의 날씨로 해가 지고는 살짝 쌀쌀했다.

영국 국내 여행은 trainline 어플을 통해 기차를 예매하였다. 여기서 버스도 확인할 수 있어 가격과 시간을 비교하기 편했다.

비행기는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하였고, 다른 교통편을 알아볼 때에는 omio에서 버스와 기차를 비교했다. 숙소는 호텔, 호스텔, 한인민박 등 다양하게 이용했으며, 아고다나 민다를 통해 예약했다. 투어는 주로 마이리얼트립에서 찾아보았고, 아이슬란드 여행 중에는 get your guide, 클룩을 통해 영어 투어를 예약했다.

특별히 가고 싶은 관광지가 있을 경우 미리 계획하고, 예약하기를 추천한다. 스페인을 여행할 때, 며칠 전에 알함브라궁전과 사그라다파밀리아 입장을 알아보았더니 이미 매진되어 내부를 구경하지 못했었다.

종강 후에는 유레일패스를 구매해 여행을 하였다. 대부분 좌석예약이 필요했고, 유로스타와 야간열차를 탑승해 쏠솔하게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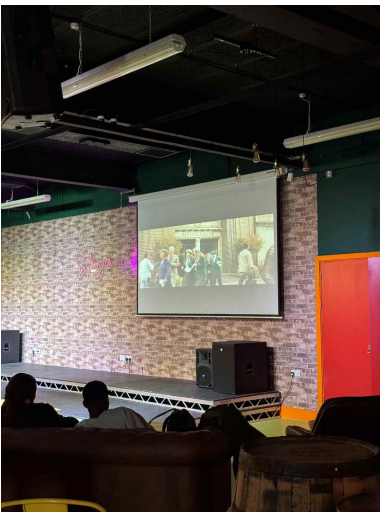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외롭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금방 극복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단순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된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환학생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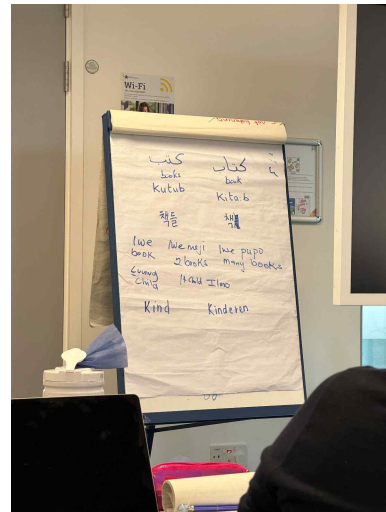
- 기숙사 외부 및 내부



- 루나라운지 무비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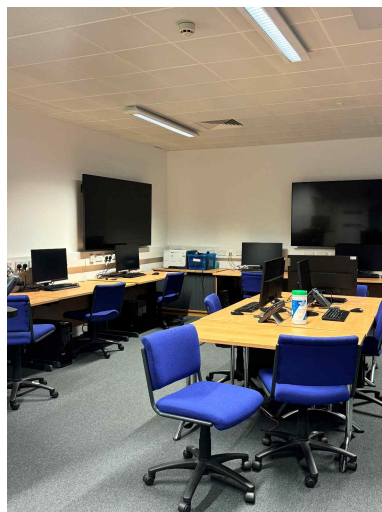
- 네팔 음식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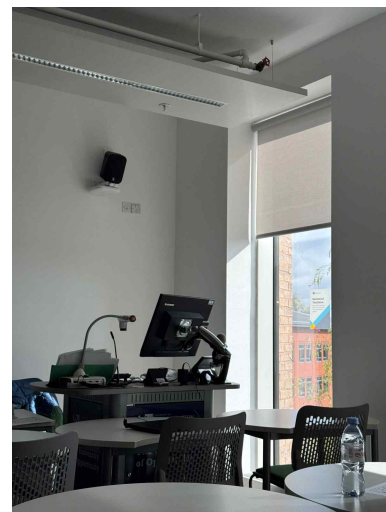
-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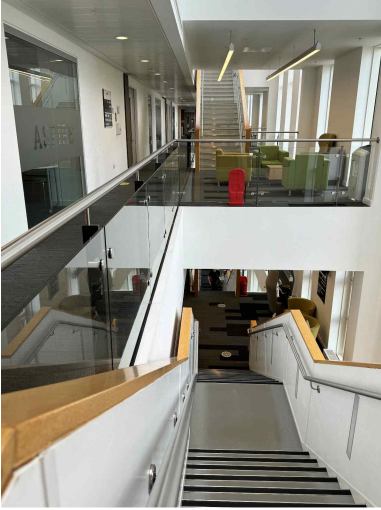


- 대학교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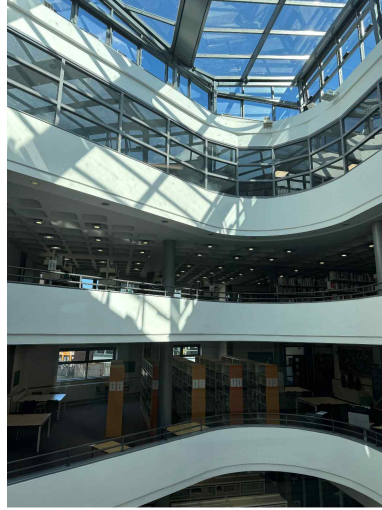


- 강의실





- 대학교 내부



- 도서관

